



불교중앙박물관은 지난 17일 43년만에 돌아온 석가탑 유물 가운데 하나인 금제사리외함을 일반에게 공개했다. 사진은 고불식에 참석한 불자들이 환희심 넘치는 얼굴로 금제사리외함을 진경하는 모습. 김형주 기자 cooljoo@bulgyo.com

‘시대부응 승가교육’ 대계 마련

교육원, 인재양성 목표 기본계획 발표 기존체계는 존속시키고 내실화에 초점

조계종 승가교육과정이 대폭 개편된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스님)은 지난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교육원 승가교육 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행자교육은 사회 인재를 적극적으로 영입해 출가자 감소·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교재와 지침을 개발해 신심과 원력을 키우는 등 출가자로서의 자긍심과 비전을 갖추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기본교육은 불교사상 정립과 불교적 세계관 확립이라는 ‘기본’을 제대로 익힐 수 있는 내용으로 꾸며졌다. 재교육은 실제 사찰이나 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고 지도자로서 필요한 강화를

중단차원에서 개설해 제공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다. 이밖에 전문교육과 특수교육도 많은 변화를 예고했다. ▶ 관련기사 3면

이번 기본계획은 교육원장 현응스님을 필두로 새로운 진용을 짠 교육원이 지난 한달 동안 승가교육 전반에 대해 검토하고 논의한 결과가 녹아있다.

1994년 개혁종단 출범 이후 승가교육과정이 체계화·의무화되는 성공을 거뒀지만, 전문 인력 배출과 불교지

등을 현대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이다. 한국불교와 사회의 지도자로 만들기 위해 출가부터 이에 걸맞는 교육을 단계별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장 법인스님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전문적인 승가인재를 양성하고 배출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며 “승가교육 발전 방향과 윤곽을 종도들에게 설명하고 함께 행보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기본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실행방안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내년 2월 발표할 계획이다.

김하영 기자 hykim@bulgyo.com

국보 제126호 ‘불국사 삼층석탑 사리장엄구’ 43년만에 불교계로 반환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인 쇠물인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을 비롯해 1966년 경주 불국사 석가탑에서 출토된 사리장엄구 일체가 발굴된 지 43년 만에 불교 품으로 돌아왔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17일 조계사에서 국보 제126호 불국사 삼층석탑 사리장엄구의 반환을 알리는 고불식을 봉행하고, 세계적인 불교 성보의 귀환을 축하했다.

최근 보존처리과정에서 발견된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문양 비단과 360여점의 유리구슬도 있다. ▶ 관련기사 5면

지난 2007년부터 석가탑 사리장엄구 반환운동을 벌여온 불교중앙박물관장 범하스님은 “불교중앙박물관 개관 이후 종단의 불교문화재 보존·관리능력이 향상되면서 성보 반환을 요구한지 3년

이날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교육원장 현응스님이 대독한 범어에서 “통일신라 때부터 고려의 문화를 담고 있는 중요한 불교성보인 불교중앙박물관에 모시게 돼 다행이다”며 “부처님 교설을 담긴 무구정광 등 법신사리와 사리장엄구 반대에 이르기까지 세 계유산으로 길이 보존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교육원장 현응스님이 대독한 범어에서 “통일신라 때부터 고려의 문화를 담고 있는 중요한 불교성보인 불교중앙박물관에 모시게 돼 다행이다”며 “부처님 교설을 담은 무구정광 등 법신사리와 사리장엄구 반대에 이르기까지 세 계유산으로 길이 보존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고불식에 참석한 300여명의 불자들은 문화부장 호탄스님이 낭독한 고불문을 통해 불국사 사리장엄구가 조계종으로 돌아온 것을 축하하며 사리장엄 반환을 계기로 사찰을 떠나 있는 많은 성보가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원했다.

한편, 반환된 석가탑 사리장엄구는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에 보존 관리된다. 박물관은 이후 불국사와 논의를 거쳐 사리장엄구를 진경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교육원장 현응스님이 대독한 범어에서 “통일신라 때부터 고려의 문화를 담고 있는 중요한 불교성보인 불교중앙박물관에 모시게 돼 다행이다”며 “부처님 교설을 담은 무구정광 등 법신사리와 사리장엄구 반대에 이르기까지 세 계유산으로 길이 보존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헌경 기자 eonald@bulgyo.com

17일, 조계사에서 고불식 봉행 “세계유산으로 보존되길 기원”



이웃종교인 초청 오찬 개최

총무원장스님, 종로관내 김광준신부 등 8명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종로 지역 이웃종교 인사를 초청해 지난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에서 오찬을 함께 했다. 제33대 총무원 집행부의 발원인 ‘소통과 화합, 불교중흥’을 일상적으로 실천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오찬에는 대한성공회 교무원장 김광준 신부, 조계사 앞 중앙교회 강광석 수석장로, 천주교 혜화동 가톨릭 신학대학 박문성 신부, 원불교 종로교당 정숙현 교무, 정한기 성균관 사무총장, 이찬구 민족종교협의회 기획부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반환된 석가탑 사리장엄구는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에 보존 관리된다. 박물관은 이후 불국사와 논의를 거쳐 사리장엄구를 진경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인 지역 종교인들과의 교류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누구보다 가까이 지내면서 소통하고 싶다”고 초청에 응해준 이웃종교인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종교 간 소통과 화합, 협력의 실천을 위해 7대종교 대표들과의 교류와는 별도로 종로지역 종교인과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가질 계획이다.

한편 총무원장 스님은 지난 11월 18일 조계사 앞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 5층 ‘바루’에서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회장단인 7대종교 대표들을 초청해 함께 공양했다. 12월 15일에는 이날 모임에 참석하지 못한 천주교 김희중 주교와 원불교 김주원 교정원장을 초청해 따로 오찬을 하는 등 종교화합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장영섭 기자

“소통·화합으로 이웃사랑 실천을”

총무원장 자승스님, 성탄축하 메시지 발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오는 25일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지난 16일 발표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성탄 축하메시지에서 “사랑과 평화의 진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탄생을 2000만 불교도와 함께 축하한다”고 인사를 건넸다.

아울러 “경제 어려움과 사회 갈등으로 인한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이때, 우리는 가난한 이웃에 대한 사랑

을 실천하고 모든 차별에 반대하면서 복음을 전한 예수님의 일생을 다시 돌아보게 된다”며 “낮고 습한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어난다는 처연상정(處染常淨)의 정신 역시 함께 새겨야 하고, 성탄절을 맞아 내면의 진실한 울림에 귀 기울여 실천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의 성탄 축하 메시지는 올해로 10년째 공식 발표되고 있다.

성탄축하 메시지 전문

사랑과 평화의 진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탄생을 2천만 불교도와 함께 축하합니다.

경제 어려움과 사회 갈등으로 인한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이때, 우리는 가난한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모든 차별에 반대하면서 복음을 전한 예수님의 일생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낮고 습한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어난다는 처연상정(處染常淨)의 정신을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즐겁게 누리는 행복한 성탄과 연말연시가 되길 손 모아 기도합니다.

우리 종교인 모두가 소통과 화

합, 그리고 나눔으로 세상을 보듬어갈 기원합니다. 누구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종교인이 먼저 이웃사랑의 정신을 실천하며 이념과 사상, 종교적 신념을 넘어선 대화합의 길을 걸어갑니다.

기독교인들을 비롯하여 이 땅의 모든 종교인들과 진리와 양심을 추구하는 사람들 모두가 함께 소외된 이웃에게 마음을 내어 주길 기원합니다. 예수님 탄생의 기쁨을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즐겁게 누리는 행복한 성탄과 연말연시가 되길 손 모아 기도합니다.

불기 2553(2009)년 12월 16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남해제일관음기도도량 금오산 향일암
www.hyangiram.org

향일암 새해 맞이 철야 기도

귀의삼보 하옵고
희망은 보이지 않고 절망과 고난으로만 가득했던 기속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새로 짓고 황금으로 단청을 한 대웅전에서 철야 정진을 하며 경인년 새 해를 향일암 부처님과 함께 맞이하며 희망과 부처님의 가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일 시 2009년 12월 31일 오후 6시 ~ 2010년 1월 1일 오전 6시
 동참금 10,000원 • 문의처 061)644-4742 644-9012 fax 061)644-2390

대한불교조계종 남해제일관음기도도량 금오산 향일암 주지 원문 · 신도회장 최 반야심 합장